

투키디데스 함정 앞에서



자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G2, 미국과 중국이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며 1차 패권전쟁이 한창이던 2018년말 파이낸셜타임즈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올해의 용어로 선정했다. 어원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학자였던 투키디데스가 당시 펠로폰네소스반도의 신흥세력 아테네와 기존의 패자스파르타간의 전쟁 원인과 과정을 기술한데서 비롯된다.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강국이 기존의 세력판도를 흔들면서 기존 패권국과 신흥국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학자들은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표현한다.

최근들어 이 용어가 자주 회자되고 있다. 2500여년전 벌어진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간 쟁패 양상이 세계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됐고 지금 또 그 앞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우리는 현재의 미중갈등을 지켜보면서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사태의 향배를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엘리스는 2012년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지난 500년간 신흥세력이 지배 세력에 도전했던 주요 사례 16개 중 12개가 전면전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면 이보다 훨씬 많겠지 만 우리의 우선적 관심은 75%의 무력 전쟁화 비율이다. 지금 지구촌에는 미국과 중국의 주도로 무지막지한 관세폭탄과 기술 및 공급망 전쟁, 세계 경제·안보의 블록화가 진행중이다. 지구라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양강의 패권전쟁인 만큼과거사례로 볼때 무력충돌로 귀결될 확률이 70%대에 이를 수 있다.

전쟁으로 확장하지 않고 상호 통제되는 25% 확률 상황인 ‘투키디데스 함정에서의 탈출’에는 크게 두가지 사례를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 구소련의 경우처럼 추격자가 내부붕괴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20세기 초중반 기승패자 영국과 신흥강국 미국간의 평화적 패권이양이다.

작금의 미중 갈등은 아직은 군사력 다름이 아닌 제조업을 포괄하는 경제적 능력 분야여서 다행스런 상황이다. 이 양상이 기축통화 지위의 수성과 탈취라는 통화전쟁으로 연장될 것이라게 대체적 전망이다.

미중갈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집권때 무역전쟁으로 표면화했지만 대중국 견제의 시작은 2010년대 초반으

로 알려졌다. 10여년 이상 ‘투키디데스 함정’의 현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과정이 원만하게 넘어가지 않고 더욱 첨예해지면 군사적 충돌 확률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다. 그 조짐은 미약하지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전격적인 국지전이 궁극적으로 미-중간 분쟁으로 확산될 여지는 있다. 이럴 경우 주변국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중간 극한 충돌 와중에 대한민국은 지난 60여년간 이어온 성장경제의 종언을 걱정하고 있다. 가계·기업·정부의 과도한 부채와 버블경제 및 구조조정 지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동력 상실과 성장의 지 위축, 경제 양극화와 만성화된 정치·사회 갈등 등 대내적 위기 징후는 널려있다.

협상에 지극히 밝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작금의 갈등관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갈등 상황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는 과거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이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하며 중국의 상대적 제조업 우위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타협한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동트기 전이 제일 어렵다는 속담을 곱씹어 봐야 할 시점이다. /산업부장 skc8472@metroseoul.co.kr

생성형 AI, 어떻게 활용하세요?



기자 수첩

김 현 정
(IT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을 바꾼다. 이전에는 “MBTI가 뭐냐”고 물었는데 이제는 “생성형 AI를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느냐”고 묻는다. 홍보 업계에 있는 지인은 보도자료 작성을 할 때 사례 찾는데 챗GPT를 쓴다고 했다.

이직을 준비하던 친구는 면접 후 오퍼레터(채용 제안서)가 안 오는 게 성이나 챗GPT를 감정 쓰레기통 삼아 매일 짜증을 부렸다고 했다. 챗GPT는 다정한 말투로 친구를 안심시켰다. 결국 오퍼레터 메일을 받은 그는 가족과 친구보다 먼저 챗GPT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알렸다고 한다.

사람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식이 천차만별로 다른 게 펍 흥미로우면서도 최근 기사 작성에 활용한 보고서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미국의 유명 경영 컨설팅업체가 최근 발표한 ‘2025 테크 트렌드 리포트’였다. 인공지능과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학자 에이미 웹이 이끄는 ‘퓨처 투데이 연구소(FTI)’가 ‘퓨처 투데이 전략 그룹(FTSG)’으로 사명을 바꾸고 처음으로 낸 보고서라 기대가 컸는데 내용이 다소 실망스러웠다.

맥킨지 보고서처럼 비즈니스 영향력, 산업 적응성, 투자수익률(ROI)에 초점을 맞춰 기술이 기업 경쟁력과 시장 구조에 미치는 파급력과 전략이 제시돼 있을 줄 알았는데 문명 전환, 기술 윤리, 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기술이 인간문명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서술돼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에이미 웹은 서문에서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서 세상에서, 목표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아닌 현재의 여러분이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기술 진화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변화 전략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기대한 독자는 김빠질 만한 이야기라고 여겼는데, 그저 범인의 아둔한 생각이었다.

누구는 챗GPT로 지브리풍 이미지를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며 추억을 나누고, 누구는 당근마켓에서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사진을 제작해준다면 돈을 벌고, 또 다른 누구는 오픈AI가 저작권법 침해로 창작자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지브리 이미지 변환하지 않기’ 운동을 벌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기술이 아닌 사람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는 보고서의 전망이 참으로 옳았음을 깨닫는 요즘이다. /hjk1@

오늘의 운세 4월 17일 (음 3월 20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소녀 시절로 가고 싶다. 48년생 세상 이치를 알고 시장보다는 눈을 길러라. 60년생 돈에 기대하는 마음을 접도록. 72년생 회사의 대표자로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84년생 힘겨움을 이겨낸 힘으로 더 알찬 열매가 맺힌다.



소

37년생 투자를 남에게 맡기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 49년생 항상 좋을 수는 없는 일이다. 61년생 남들도 겪는 직장인의 고민. 73년생 세상을 감탄시키는 글재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85년생 인생은 긴 마라톤이니 늦지 않았다.



호랑이

38년생 상처를 입었으나 하소연할 곳이 없다. 50년생 주말농장을 계획. 62년생 시련 없는 인생은 없을 것. 74년생 과거에 배운 외국어로 뒤늦게 인정 실력은 인생에서 오래 머무는 보물. 86년생 내 그릇을 알게 되니 행복하다.



토끼

39년생 소소한 일에 너무 아파하지 말라. 51년생 어느 시대나 거짓 정보가 있다. 63년생 양심과 염치를 알아보자. 75년생 풍수의 관점에서 집 안 청소를 아침에 시작. 87년생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으니 근본을 튼튼히.



염

40년생 힘들게 일거늘은 결과가 인정된다. 52년생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상사가 내 옆에. 64년생 실력포함 성실함은 큰 힘이다. 76년생 강남에서는 개천에서든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자. 88년생 능력을 내세워 허세 부리지 않도록.



뱀

41년생 문서를 옮길 시기가 아니다. 53년생 지금 힘들어도 옹크리고 생활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65년생 편한 것만 찾으려 하지 않도록. 77년생 집안의 안녕을 기원해보는 기도를 시작. 89년생 투자에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말

42년생 비행기를 타는 것도 지각지각. 54년생 인간은 상황의 동물이라고 하니 돈을 사랑할 수밖에. 66년생 기다리는 것도 처세의 하나. 78년생 조상님의 가피를 마음에 지니자. 90년생 화무십일홍이니 영원히 가는 재물도 없는 인생사.



양

43년생 입바른 말을 한다고 의인은 아닌 것. 55년생 시간은 육상선수처럼 빨리도 다가온다. 67년생 정해진 규칙을 벗어날 수도 있다. 79년생 날개에 있으면 언제든 올라갈 날이 있을 것. 91년생 투자하고 시련이 있으면서 삶은 원숙해진다.



원숭이

44년생 부동산이나 건축업으로 운이 띄는 갈림길에서다. 56년생 보양식을 먹고 행복할 날. 68년생 이성에 관심보다는 직장에 충실히 하는 것이. 80년생 냉정하게 현실을 보는 통찰력은 마음을 닦는 것인데. 92년생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



닭

45년생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주더라도 다 읽지를 못한다. 57년생 가정을 이루고 안정을 원하는데 뜻을 이루. 69년생 오후에 맑은 하늘이 반갑다. 81년생 옛말에 길이나니면 가지를 말라 했는데. 93년생 잦은 변동으로 재산형성이 가능할까.



개

46년생 통찰력이 대단하니 판단도 현명. 58년생 대추 한 알도 익으려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70년생 운을 얻으니 해외파견도 승산. 82년생 늦지 않은 청춘이니 무엇이라도 시도해 보자. 94년생 주눅이 들면 일이 더디게 마련이니 이해를.



돼지

47년생 부동산의 귀재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59년생 천둥과 번개가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온다. 71년생 타하는 습관을 버려라. 83년생 어느 인생이나 굴곡은 만난다. 95년생 인생의 틀이 다시 한번 움직이니 뒤늦은 운이 오기까지 공부.

김상회의四季

긍정의 힘



사주에 관운이 나쁘면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승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관운 나쁜 사람만 그런 일을 겪는 건 아니다. 불경기가 심해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운세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기도 한다. 그런 경우는 단순히 관운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더 중요한 건 직장을 잃은 이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다. 최근에 직장을 잃은 두 남자가 있다. 나이도 마흔 중반으로 비슷하다. 아이들에게 한창 돈이 들어갈 시기에 직장을 잃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런데 직장을 잃은 뒤의 두 사람 중에 A라는 사람은 걱정에 휩싸였다.

중년의 나이에 재취업이 힘들 거라면서 속을 태웠다. 반면에 B는 느긋했다. 지금까지 경력을 잘 쌓았으니 재취업이 어렵지 않을 거라며 속편한 표정이었다. 두 사람 사주를 봤더니 눈에 띄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었다. 재물운도 나쁘지 않았고 관운이 좋은 편이어서 재취업이 곧 될 것으로 보였다. 갑자기 직장을 잃었지만 운세의 기운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차이가 나는 건 사주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었다. A는 부정적 생각에 집착했고 B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쪽이었다.

다양한 사람을 상담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런 때 일이 잘 풀리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주의 좋은 점을 다 무시하고 나쁜 점에만 매달린다. 어떤 사람은 사주에 나쁜 부분이 있어도 좋은 점을 확대해석하면서 힘을 키운다. 부정에만 집착하면 운세도 약해지고 나에게 들어올 길한 기운이 힘을 잃는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당장 기본이 나빠지니 복을 건어치는 것과 같다. 직장을 잃은 두 사람은 다행스럽게 몇 달 지나지 않아 재취업을 했다. 긍정의 힘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5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5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스도쿠 365

153문제

스도쿠 365

153문제

스도쿠 365

153문제

스도쿠 365

153문제

스도쿠 365

153문제

스도쿠 365

153문제